

金箕斗博士의 人間과 學問

參席者：金箕斗(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教授)

姜求真(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教授)

日 時：1980年 11月 19日 午後 1時

場 所：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 所長室

姜求真：先生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여기 法學研究所에 나오시게 되어 감사합니다. 先生님 回甲에 대해서 우리 法科大學 教授들이 이미 같이 축하를 드렸읍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모셔 선생님 回甲을 진심으로 祝賀드립니다. 오늘 여기 모시게 된 것은 선생님을 평소에 가까이 모시면서도 선생님께서 이제까지 걸어오신 길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아, 이번에 서울大學校「法學」이 선생님 華甲記念號로 발행됨을 계기로 선생님께서 이제까지 걸어오신 人生의 歷程과 또 學問에 대해서 여러가지 생각하신 바를 저희들이 듣고 배우고 싶어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金箕斗：감사합니다.

I. 어린時節 및 집안

姜：우선 선생님의 어린時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金：나는 全南 求禮 吉山 밑에서 태어났읍니다. 그리고 求禮公立普通學校를 卒業했읍니다. 그후에 당시의 全州高等普通學校를 들어갔는데, 그때 내 從兄이 全州高等普通學校에 있었어요. 그래서 중형을 따라서 全州高等普通學校에 들어갔읍니다. 그후 4學年때 다짐 저의 아버지께서 羅州로 移徙를 했어요, 그래서 4學年때 光州高等普通學校로 轉學했지요. 그때가지고 光州高等普通學校를 卒業했읍니다.

姜：그럼 선생님 家族關係와 집안에서 누가 法律을 하셨거나 주위에서 法律을 킨하신 분이 계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金：원래 우리 아버님께서 光州高等普通學校를 나왔읍니다. 우리 어머님이 光州高等學校 1년제고 제가 13회 졸업생입니다. 그때가지고 그 양반이 국민학교 선생을 했어요, 그래서 쪽 그 밑에서 자랐지요. 그리고 집안에서 法律공부를 했다거나 그런 분은 없었고 내가 처음일겁니다.

姜：작년에 숙부님께서 돌아가실 때에도 제가 뵈었지만 여러 형제분들 많이 계시고 숙부님께서 자유당시절에 道議會 議長을 하신걸로 알고 있고, 선생님이 제일 많이 이신데 이번엔 선생님 형제분들에 대해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金：내가 長男이고, 次男이 원래 光州에 있었는데, 지금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째는 光州에서 小兒科病院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광주에선 이름이 높지요. 지금도 病院을 하고 있어요.

姜：선생님 사모님이라든가 아드님에 대해서…….

金：우리 집사람은 학교는 光州女子高普通을 나와가지고 저와 결혼하고 우리 長男은 서울大學校 醫科大學을 나와가지고 美國에서 精神科를 專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法科大學을 나와가지고 大宇實業에 가

있습니다. 셋째는 지금 놓고 있고 학교는 東國大畜産科를 나왔습니다. 네째가 外國語大學을 나와가지고 지금 마포고등학교에서 獨語先生을하고 있습니다.

II. 日本留學

姜：先生님께서는 日本에 가서서 高等學校를 다니시고 東京帝大를 나오셨는데 그 연유를 말씀해 주시죠.

金：네, 光州高普를 卒業하고 日本留學길에 올랐죠. 日本에서는 마쓰에(松江)高等學校를 다녔습니다. 그 마쓰에(松江)高等學校로 가게 된 것은 중학교 1년선배가 마쓰에 고등학교에 있었는데, 그 선배가 그 地方은 조용하고 경치가 좋으니, 그러로 오라고 해서 그리 갔어요.

姜：상당히 여유있게 결정하셨군요. 그런데 先生님 高等學校時節은 日政治下의 時節인데 그때 특히 기억에 남으시거나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金：우리 Class에 韓國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뭐 일본사람 중에는 별로 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경치가 좋은데 가서 산책을 하고,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그런 時節이 길었습니다. 결국 그런 어떤 자신의 생각이랄까 그런 것은 거기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골똘히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姜：高等學校時節이 人生에 끼치는 영향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느끼는데, 當時의 高等學校는 지금의 高等學校와 여러면에서 달랐을 것 같은데요. 예컨대 敎科目이라든가…….

金：아,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특히 한 Class學生 30명이 3年 계속, 文科, 甲·乙類로 나뉘어 한 반으로 지내죠. 나는 文科 甲類를 나왔죠.

姜：그래서 41년에 高等學校를 卒業하시고 東京帝大法學部를 나오셨는데 그 東京帝

大를 志望하시게 된 動機라든가 특히 法科를 지망하신 動機, 그런 것을 조금 말씀해 주시지요.

金：예, 예, 당시 高等學校 文科를 卒業하면 日本學生들은 거의 다 法科를 지망했습니다. 나는 사실상 法學이랑게 아주 싫었어요. 그래서 東洋史學科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東洋史學科를 가면 學費를 대주지 않겠다는 집안의 壓力으로 결국 法科를 생각하게 되었죠. 그후에 알고보니 당시의 高等學校의 秀才라 할까, 가장 優秀한 친구들이 전부 東京大學 法學部로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京都大學으로 가고말이지 九州大學으로 가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선 내가 뭐 法學을 싫어하고 좋아하고 보나도 요컨대 그저 아주 우수한 학생이라고 그런 뭐 싫었을 때의 기분으로 그런 評을 받기위해서 法學部를 지원해서 꼭 東大法學部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리 지원한 겁니다.

姜：先生님 그럼 高等學校때에는 歷史에 상당한 취미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金：아,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이 刑事訴訟法을 수업함에 있어서 다른 것과는 틀리는 것이 항상 歷史的 考察이랄까 그런 점이 많다는 거죠. 좌우지간 당시의 나는 歷史를 상당히 좋아했고,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姜：그래서 41년에 入學을 하셔서 43年 10月, 그러니까 2年 6個月만에 졸업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당시 어떻게해서 그렇게 짧은 기간에 졸업을 하실 수 있었는지요?

金：네, 사실 당시 學部の 受業年限은 3년이었어요. 그런데 戰爭이 시작되어서 文科系統 學部에서는 大部分의 學生들이 싸움터로 나가는 상황이어서 講義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 卒業을 하게 되었는데, 戰爭關係로 6個月 단축을 해가지고 卒業을 한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졸업을 하게 되었지요.

姜 : 네, 그러니까 戰爭이 卒業을 앞당긴 결과라 되었군요. 그런데 당시에 先生님께서 法學을 專攻하실 때에 韓國人으로서 같은 學年에 在學中이셨던 분으로서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金 : 그러니까 李漢基 博士가 같은 Class에 있었어요. 처음엔 몰랐지요. 고향이 長城인데 나는 몰랐죠. 거기서 처음 만났는데, 보통 中學校學生 中에서는 조선사람같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게 보통이지요. 그런데 李漢基君이 아주 조선사람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혹시 朝鮮서 왔느냐고 내가 물었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반가와 할 수 없었어요. 그뒤 줄곧 李博士와 함께 지내게 되었죠. 그리고 劉基天先生도 그때 같이 지냈지요.

姜 : 劉基天 先生님과 선생님의 관계는 그때부터 이루어졌군요. 만나게 된 動機랄까 좀 말씀해 주시죠.

金 : 東大에 入學하니까 劉博士가 2年 먼저 와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몸이 좋지 않아 휴학을 하고 그래서 졸업을 같이 했지요. 그러나, 들어갈 때는 2년 선배지요, 그때부터 잘 알고 있었지요.

姜 : 그리고 그당시 제가 알기로는 日本人 學生中에서도 히라노(平野龍一)教授, 마사니教授등과 같이 學校에서 친하게 지내셨던 분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金 : 아 그때 우리 學生들이 戰爭으로 다 나가버리고 이 사람들만 그중에서 大學院要員이었지요. 말하자면 助手의 資格으로, 文科學生들이 모두 戰爭에 나갔는데도 이 사람들은 戰爭때 병역의무가 면제되어 가지고 우리 2학년 Class를 가르쳐주게 되었지요.

姜 : 네, 그랬었군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일생동안 쭉 學界에만 계시고 學問만 특히 刑事法만을 하셨는데, 大學時節에 刑事法을 講義하신 분으로서 기억에 남아있는 분들로는 어떤 분이 계신죠?

金 : 오노 세이이치로(小野清一郎)博士가 刑

法을 가르치고, 단도 시게미즈(團藤重光)教授가 助教授로서 刑事訴訟法을 처음으로 講義를 했습니다.

Ⅲ. 解放 및 6·25時節

姜 : 에, 이제 大學卒業後부터 8·15解放될 때까지 先生님께서 겪으신 바를 말씀해 주시죠.

金 : 大學을 卒業하고 나니 學兵問題가 거론되었죠. 在學生들만 다 뽑아가니 좀 부족했던가봐요. 그래서 學兵에 卒業生도 포함시키게 되었죠. 그래서 光州 우리집에 와있게 되었는데 집에 좀 있다가 軍에 가게 되었죠. 그러가지고 1년 5개월만인가 1년 6개월만인가 解放되었지요. 戰爭이 끝난뒤에 바로 韓國에 나왔읍니다.

姜 : 그럼 學兵으로서는 日本에 계셨군요.

金 : 그렇지요. 東京서 훈련을 받았어요. 東京이 아주 불탄 뒤에까지도 東京에 있었지요.

姜 : 그럼 선생님, 歸國은 8·15以後에 하셨군요.

金 : 그렇지요. 8·15以後에 歸國했읍니다. 거기서 나와 가지고 바로 歸國했으니까.

姜 : 光州로 오셔서 光州醫大 助教授로 계셨는데 光州醫大에 몸담으신 인유는 어떤한지요?

金 : 원래 光州高等普通學校에서 英語를 가르치고 있었읍니다. 日帝末期에 위낙 가르치지 않을라서 教師들이 대부족했고 그런 시정은 나의 母校인 光州高普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光州高普卒業生들중 대개 우리 또래가 모여 母校에 奉仕하자고 했으며, 나에게도 英語를 맡아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英語를 가르치게 된거죠. 그런데, 당시 光州醫大가 있었는데 거기도 英語教授가 없다고 講義를 부탁해 왔읍니다. 승낙을 하고 光州高普와 光州醫大에서 각각 英語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마침 光州醫大大學長이 나를 잘 알

고 있었던 분이라 그 분이 나의 履歷書를 써 가지고 醫科大學教授로 먼저 發命을 냈지요. 그래서 光州高普를 그만두고 醫大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약 4년이랑 했던 것 같아요.

姜: 네, 지극히 우연한 계기로 그것도 英語를 통하여 學校와 인연을 맺게 되셨군요. 그런데 그후에는 法務部에서 法務官으로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시면서도 刑事訴訟法教科書를 내셨는데 당시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金: 法學을 전공한 사람이 英語先生을 하고 있으니 또 英語先生도 하고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서울로 올라오니까 法務部에 선배가 있었읍니다. 洪繩基씨가 거기 국장으로 있었어요. 法務部 調查局長으로 있어서 法務官으로 있게되었죠. 그런데 그때 刑事訴訟法이 아주 급했읍니다. 처음엔 뭐 아는 사람이 없단 말야, 그때 책이 하나 들어왔어요. 文敎部 계통에서 들어온 것이었지요. 그래서 결국 洪繩基씨하고 나하고 민복기씨하고 김갑수씨하고 넷이 그걸 읽고 복습을 하자 그랬단말이야 나는 法務部 法務官으로 있던 때라 같이 매주일 모여서 복습을 하자고 해놓고, 이 양반들이 굉장히 바빠서 책을 읽으려고도 않고 그저 날보고 出版을 하면 사서 보겠다는 것이어요. 그래서 사실 刑事訴訟法을 法務部에서 냈지요.

姜: 6·25당시에 先生님이 겪으신 일과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金: 네, 그때 막 東國大學校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6·25가 터졌어요. 발발당시에는 피난을 가지 못했어요. 1.1후퇴 때 부산으로 내려갔지. 사실상 그때까지 法務部 法務官으로 그대로 있었어요. 辭表별 일도 없고 그래서 당연히 法務部 法務官으로 내리 갔었는데 지금 田博士가 그당시 法科大學 助教授로써 法科大學 학장서리를 했어. 그런데 이 분이 法務部에서 달 만나 法科大學으로

오라고 했지요. 나도 상당히 오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체 教授로서 講義를 한다는 것이 싫었는데, 그냥 發命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法大와 인연을 맺게 되었죠.

IV. 學問 觀

姜: 그래서 서울大學校 法科大學과 인연을 맺으셔서 52년 이래로 죽 이제 學校에 계셨는데, 우리학교에 오신 이래로 특히 인상에 남으시거나…….

金: 글썽요, 뭐 특별히 인상에 남는 것보다도 다만 학교에 와 가지고 刑事法을 내가한 것이, 결국 劉博士가 그때 刑法을 하고, 그리고 刑事訴訟法을 할 사람이 사실상 없었지요. 그리고 내가 刑事訴訟法을 죽 연구생으로 가서도 하고 法務部에서도 했고 또 刑事訴訟法을 하면서 여러가지 참 생각을 많이 했읍니다. 형법독해 강의를 하면서 刑法·刑事訴訟法·刑事政策을 다 강의를 해보니까 결국은 이거 당체 刑法이 刑罰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사회에선 犯罪 같은 것이 연구할 네마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형법이 獨逸刑法이거든요, 대개 日本 것 하고 말이죠. 우리나라에선 상당히 사정이 달라져 범죄문제가 큰 문제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犯罪쪽에 치중을 했읍니다. 제가 刑事政策을 하니까 그때 少年犯罪가 주된 테마가 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버드에 갔을때도 少年犯罪 研究하러 간다 그랬었죠.

姜: 55년 7월부터 1년동안 하버드에 가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전에 우리 刑事訴訟法 制定한 게 公布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혹시 관여하셨는지요.

金: 저 그것에 참여를 하지 못했읍니다. 왜 그러냐하면 결국 그당시 내가 助教授로 있었던 말이야. 굉장히 젊었죠. 거기에 직접 관여를 하신 분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지. 거기에 김병권씨 같은 분이 刑事訴訟法을 制

定하는 데 주된 역할을 했으니까 말이지. 釜山에서 刑法이 制定되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刑法이 먼저 制定될 것이 아니고 刑事訴訟法이 먼저 制定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서, 釜山 있을때 釜山日報에 썼습니다. 刑法初案이 나왔을 때 모순, 역행, 그런 study로 상당히 지적을 했어요. 그랬으나 뭐 法科大學 助教授, 더군다나 부산 피난시였으니 영향력이 저에게 없었어요.

姜: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여러가지 社會的인 活動을 많이 하시고 물론 學界를, 저희들이 보기에는 學界를 이제까지 죽 지키시고 다만 學問과 관련되는 會議 또 國際會議에도 많이 참석하시고 또 학교에서도 行政的으로 敎務課長에서부터 司法大學院長, 法科大學學長 이렇게 다 지내시고 지금도 大韓敎聯에 관계하신다든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大學行政에 대해 무슨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金: 글썬, 行政에 대해선 나도 잘 모르고… 그러나 항상 대학은 말이지요, 眞理의 殿堂으로 그것은 꼭 지켜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가지 行政的인 것이 變化가 많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난 별로 찬성을 안해요. 대학당국, 大學이란 것이 결국 內容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敎授가 자유롭게 研究할 수 있고 이 모든 것 자체를 꼭 지켜가야 하며 이것이 어떤 特別活動이라든지, 오사이 말하는 그 政治的인 또는 經濟的인, 이것도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의 활동에 관해서 그런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나, 대학은 변화가 없는 것 상당히 보수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姜: 敎授와 學生의 社會活動에 관련된 문제…….

金: 예, 그런 문제지요.

姜: 선생님은 오랫동안 研究生生活도 하시고 우리나라 刑事訴訟法을 學問的으로 제일

먼저 발전시키셨는데 이제까지 學問하시면서 느껴오신 소감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金: 글썬 내가 大學에서 學問을 한다는 그 자체가 맞는 것이냐는 의심을 갖고, 韓國에서 大學의 敎授가 계몽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 예상할 수 없는 것이고, 깊이 學問을 연구한다는 것이 거의 不可能한 것이 아닌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基礎的인 것을 단단히 공부하고 학생을 지도해야 되지 않는가, 왜 그런가 하면 결국, 내가 계속해서 갖는 생각이지만 韓國에서의 知性이라는 것이 기초가 단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허물어지지 않도록 力量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모든 文化는 그래서 기초를 단단히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基礎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文化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쪽을 좀더 力量을 다해서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姜: 그것이 法科大學敎育制度와도 관련되는 말씀이신 것 같은요.

金: 네, 글썬 法科大學에서도 물론이고 다른 데서도 그렇던 말이지요.

姜: 그다음에 刑事訴訟法은 물론 刑法도 다 관련분야라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刑事法改正, 이번 憲法改正에서도 刑訴法規定 부분이 많이 달라졌고 한데, 우리나라 刑事訴訟法이라고 그럴까, 그 法學이 나가야 할 방향이랄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金: 결국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刑事訴訟法 자체의 발생 年·月·日 보다는 결국 人權擁護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학생들보고도 그렇습니다. 刑事訴訟法이 학문적으로 성공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정말 人權意識이 투철해 가지고 人權이란 게 굉장히 귀중한 것이다, 人權이 침해되는 것을 보면 볼 수가 없다는

생각이 실무적인 단계까지 침투되어야 비로소 刑事訴訟法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대개 刑事訴訟法 자체는 節次法이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만, 그런 技術的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귀중한것, 人權意識 즉 民主主義의 基本精神이기도 한 그것을 좀 철저히 공부를 하고 생각해 달라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姜: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제자들이 法曹人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法曹人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金: 아 글썄, 내가 講義를 할때도,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法을 하고 있으면서 法이란 무엇인가를 이걸 철저히 생각한 사람이 별로 적은 것같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가지 과오라면 과오일까 이런 걸 범하는데 거기에 참여되어 가지고, 그래서 안될 사람이 선봉에 서게 된 것이, 전부 기초를 좀 단단히 하지 않아 그런 것같아요, 法이란 무엇이나, 法의 屬性이라든지 이런걸 철저히 생각해야 할텐데 그런걸 안하고 그냥 봐가지고 官吏가 되고 이러니까 나중에 중대한 결정을 할 때 가서 그냥 技術者로서 고용이 되고 말죠.

姜: 法技術者가 되어서는 안되고 진정한 法律家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군요. 그리고 그 말씀은 法實務家들 뿐 아니라 法學을 공부하는 모든 學生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외에 선생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기억나시는대로 말씀해 주시죠.

金: 글썄 내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도 비쳤지만 늘 그래요. 犯罪問題란 것에 대해서도 대체 이대로 두어선 도저히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요. 文明發展보다도 우선에 犯罪問題를 어떻게 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犯罪하고 투쟁을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刑事法이나 이런 것이 도저히 문제가 되지 않게 犯罪는 막 增加되 가니까요. 내가 돌아다니며 보아왔지만은 뭐 다른나라도 별로 이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國家的·社會的 대책이랄까 이것이 제일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犯罪問題研究會를 짚었으때 만들었어. 그래서 法科大學 學生도 많이 참여하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犯罪問題研究所를 꼭 하나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한 겁니다. 내가 朴正熙大統領 또는 金鍾泌總理에게 몇번 건의해봤지만 역시 안된단 말야, 少年犯罪, 이걸 당체 순발 수도 없게 되버렸거든.

姜: 犯罪問題가 社會의 가장 큰 문제가 되었는데 선생님 좌우간 앞으로 犯罪問題研究所가 원래 구상대로 되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法務部라던가 이런데서 좀 협력하는 것도 좋겠지요.

V. 生活 觀

姜: 學問에 관해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요즘 젊은 세대에 대해서 선생님의 젊은 세대와 대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金: 글썄요, 그것은 결국 내가 늘 보고 곰곰히 생각한 것인데, 人生의 값이랄까 뭐가 달리는 것 같단 말이지. 人生은 상당히 기니까 한걸음 한걸음 단단히 그렇게 나가 주었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마르고 달리고 그런 것같아요. 나는 달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女性들이 달리기 시작했던 말이지. 길가에 가다가도 나는 깜짝 놀랍니다. 왜 이렇게 달리나 하고 보면 별 다른일도 아닌데 달리고 그렇단말이야. 그래서 세상은 不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 선

생님 이제까지의 지내오신 인생과정에서의 生活信條, 선생님께서는 多才多能하셔서 수필집도 내시고, 그래서 선생님이 오히려 文學쪽에서 활동을 하시면 더 빛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韓國에 태어난 幸福」이란 책도 내시고 그러셨는데 선생님의 生活信條라든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金: 글쎄 뭐 生活信條란 별 게 없고 오래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사실 社會的으로 조금더 여유를 갖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먹은 사람이나 여유가 좀 없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100%를 한 다거나 아주 끝까지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일부터 조금 밑에서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도 커피를 마셔도 조금 남겨야하는 이상한 習性이 생겨버렸어요.

姜: 선생님 그게 바로 中庸之德하고 통하는 것이 아닙니까?

金: 네, 여러가지 말이 많지만은 역시 東洋에 있어서 中庸이란 것이 아주 眞理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정도의 여유를 놓고 시간을 따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죠.

姜: 선생님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大學에서 쪽 學問을 하시고 그 다음에 名譽教授로서 우리학교와 학문을 위해서 일을 하실텐데, 앞으로 뭐 특별한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시던.

金: 뭐 특별한 계획은 없고, 역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야 되겠죠. 지금 講義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금와서 점점 더 깨닫고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는 기억을 잘 했는데 나이가 많아서는 깨닫는 능력이 상당히 증가하고, 기억은 아주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기억해 놓은 여러가지 統合的인 知識이 정말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아주 귀중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역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 봄으로써 그것이 진짜로 알게 되는 것이며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젊은 사람하고 가가와야만 한다는 생각에 대해선 상당히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姜: 혹시 號가 있으신지요.

金: 아, 나는 號를 반대합니다. 이름이면 충분하지요. 옛날 영감들이 아마 자기이름을 부르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서 號를 만든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姜: 선생님께서는 원래 形式같은 걸 별로 중요시 않으시지요. 內容을 중요시하시는 선생님의 人品의 당연한 귀결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姜: 저희들 弟子로서 선생님이 오래, 선생님 선친께서 작년에 떠나셨지만 선생님집안을 보니까 아주 장수하는 집안이신 것 같아요, 오래오래 사서 가지고 弟子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시고 앞으로 계속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金: 정말 감사합니다.